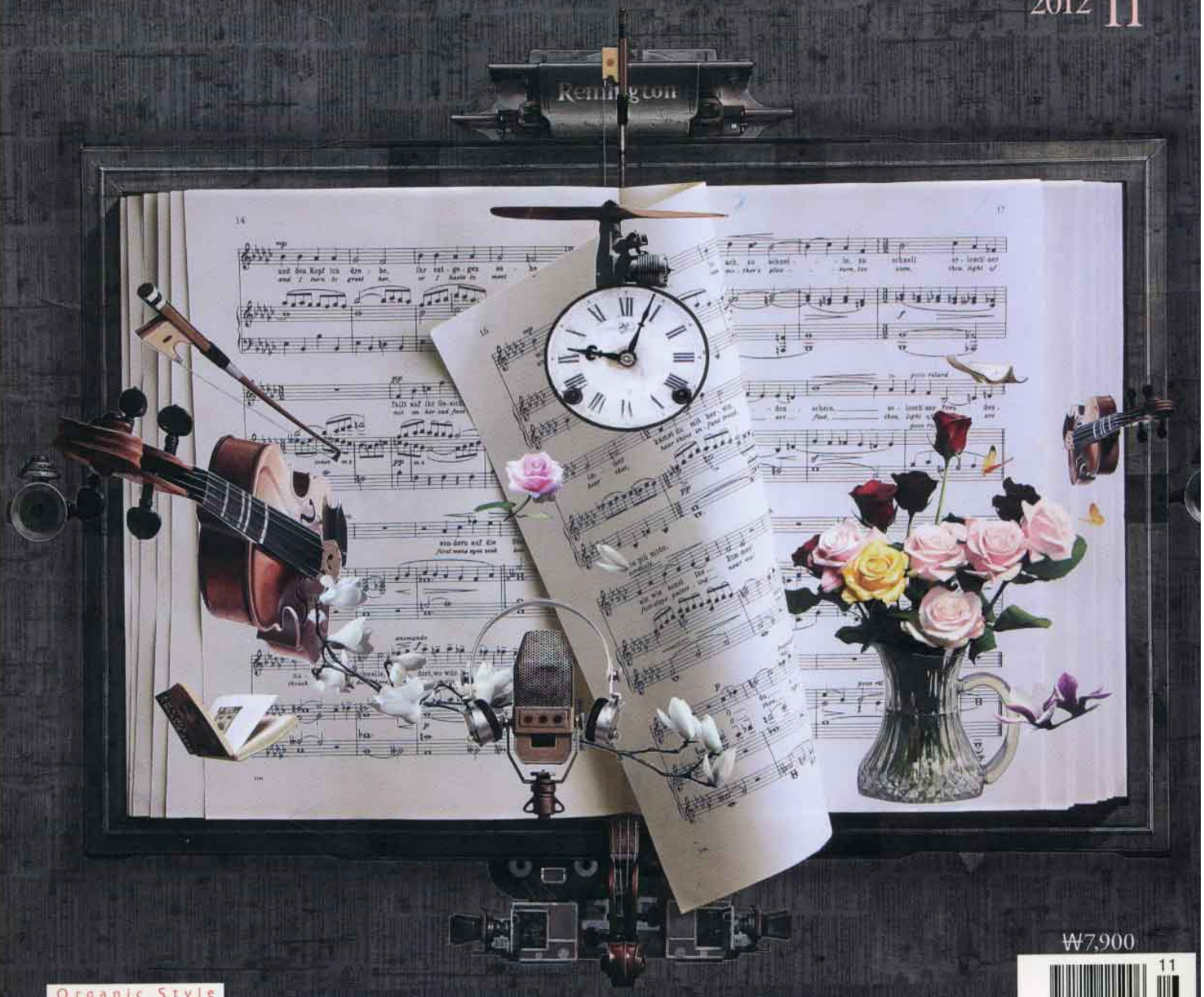
Design Your Lifestyle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

행복이 가득한 집

www.design.co.kr
2012 11



₩7,900
11
9 771227 115006
ISSN 1227 1152

Organic Style
자연이가득한집

포근한 니트로 인테리어하라 | 홍차의 매력에 빠지다
찬 바람 불 때 떠나는 동남아 여행 | 홈 스파 가이드 | 지금 장만하는 겨울 코트
경복궁 옆 서촌 마실 | 나눔 디자인 실천하는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

'Danube Day', 150×150cm, pigment print, 2012

'Danube Lilies I', 150×150cm, pigment print, 2012

'Danube Storm', 150×150cm, pigment print, 2012

'Elba', 150×150cm, pigment print, 2012

<캐서린 넬슨 - Other Worlds>전

진화된 풍경

"잔물결 일으키는 고기를 낚아채 어망에 넣고/ 호수가 다시 호수가 되도록 기다리는/ 한 사내가 가에 앉아 있다/ 그 옆에서 높이로 서 있던 나무가/ 어느새 물속에 와서 깊이로 다시 서 있다."(오 원 씨의 시 '호수와 나무') 사진작가 캐서린 넬슨Catherine Nelson의 작품을 보면 호수가 다시 호 가 되도록 기다리는 한 사내가 떠오른다. 빛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을까? 광활한 대지의 풍광을 수천 장 찍어 합성해 완성하는 거대한 우주는 사진이라고 믿기 어려 만큼 환상적인 기운을 발산한다. 컴퓨터 모니터를 캔버스 삼아 '장인 정신'으로 픽셀을 한 땀 한 이어 붙이는 작업에만 한 달 이상이 꼬박 걸린다. 스스로 '카메라로 표현하는 화가'라 말하는 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칼리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, 할리우드 영화 <물랭 루즈> <해리포터와 즈카반의 죄수> <300> 등의 영화 제작에 참여한 작가다. 영상 작업을 통해 기술을 탄탄하게 쌓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2010년 호주에서 가장 큰 기업 예술상인 RBS 클라이언트 토이스상을 받 며 사진작가로서 주목을 받았다. 회화와 사진의 경계를 넘나들며 '디지털 사진'의 장르적 가능성 보여준 사진작가 캐서린 넬슨의 전시가 열린다. 제5회 갤러리 나우 사진 공모전 수상작 기획전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작업한 시리즈를 선보인다. <캐서린 넬슨 - Other Worlds>전은 11월 7일 터 11월 27일까지 갤러리 나우에서 열린다. 문의 02-725-2930 글 신진주 기자